

『율리시스』의 “우연”의 주제와 부재의 수사학: “...우연의 일치는 소설보다 더 기묘한 진실...”(U 17. 323)

진 선 주

1. “바로 그 친구야. 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벌써 세 번째로군. 우연의 일치야.”(U 11. 302-03)

『율리시스』에는 많은 우발적인 일(chance 또는 coincidence)이 일어난다. 스티븐이 파리에서 받은 전보에는 “모친 위독”의 뜻이 “Nother dying”으로 잘못 적혀 있고(U 3. 199), 「키클롭스」장의 1인칭 화자가 신문기자 조 하인즈를 만난 것도 전적으로 우연한 일이다. “내”가 하인즈를 노상에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를 따라 바니 키어던 술집으로 갔을 리가 없고, 술집에 가지 않았더라면 블룸이란 인물의 존재도 몰랐을 것이다.

다른 누구보다도 텍스트의 중심인물 블룸이 가장 많은 우연의 일치를 경험한다. 그는 그의 부인 몰리와 마찬가지로 독자로 태어났다. 루돌프 블룸과 엘렌 히긴즈 사이에서 1866년에 무녀 독남으로 태어난 그는 연애 시절 몰리도 메이저 브리언 쿠퍼 트위디와 루니타 랄레도 사이에서 1870년에 무남독녀로 태어났음을 알게 된다. 둘 다 독자로 태어난 우연을 그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녀가 외팔이라니 이상한 일이야. 나도 외아들인데. 그래서 우연이란 되돌아 오

나보다. 피하려고 하면 서로 맞닥뜨리고 만다더니. 돌아서 가는 가장 먼 길이 집에 가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라든가”(U 13. 1109-11). 사람이 나고 죽는 것도 그는 우연이라고 생각한다. 디그넬의 장의차에 탄 그에게 태어난 지 11일 만에 급사한 아들의 모습이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자 그는 이런 생각에 잠긴다. “임신도 바로 우연이지...”(U 6. 77). “우리 루디의 얼굴처럼 옅은 자줏빛을 띤 주름살투성이의 조막만한 왜소한 얼굴... 자연의 실수. 아기가 건강하면 어머니 덕분이고, 그렇지 못하면 아버지 탓이라든가. 다음번에는 행운이 있기를”(U 6. 326-30).

장의차의 옆자리에 앉은 사이먼 데덜러스가 창 밖을 내다보다가 길가는 보일란을 발견하고 그에게 아는 체를 한다. 이를 옆에서 지켜본 블룸은 “내가 바로 그 순간 그를 생각하고 있었는데”(U 6. 197)라고 생각하면서 눈길을 피하며 손톱을 매만진다. 보일란은 이날 오후 4시에 그의 집에서 물리와 정사를 갖기로 되어있어 그의 머리를 하루 종일 짓누르는 골치 아픈 존재이다. 디그넬의 영결식 참석을 마치고 시내로 돌아온 블룸은 광고도안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 위하여 도서관으로 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보일란을 목격한다. 그는 재빨리 그를 피해 박물관 경내로 들어간다. “햇빛에 반짝이는 맥고모자. 에나멜 가죽 단화. 접어 올린 멧쟁이 바지. 틀림없어, 그 친구임이 틀림없어. 그의 심장은 조용히 두근거렸다 ... 아마 나를 보지 못했겠지 ... 아니야. 나를 보지 못했어. 두시가 넘었군. 하필이면 정문 근처에서. 오 내 심장이!”(U 8. 1168-79). 블룸은 저녁을 먹으러 오면드 호텔의 식당으로 가다가 저만치서 보일란을 태운 2륜 마차가 예식스 다리위로 달리는 것이 또 눈에 뜨인다. “바로 그 친구야. 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벌써 세 번째로군. 우연의 일치가”(U 11. 302- 03).

블룸이 조우하는 인물은 보일란 만이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우연하게 맞닥뜨린다. 블룸의 하루는 우연의 연속이라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사소한 우연의 일치로 점철되어 있다. 그가 생각해도 이상할 지경이다. 세 인물과의 조우만 더 예를 든다.

첫째는, 그가 존경하는 애국자 찰스 스튜어트 파넬(1846-91)의 형 존 하우어드 파넬(John Howard Parnell) (1843-1923)을 우연히 보는 일이다. 블룸이 트리니티대학 앞을 걸어가고 있을 때 임무 교대를 마친 경찰 순찰대가 막 행진을 시작한다. 보무당당하게 대로를 행진하는 순찰대의 대열을 지켜보면서 그는 살아서 경찰의 감시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자치운동(Home Rule)의 영도자 파넬을 머리에 떠올린

다. 파넬 생각에 잠겨 제과점 옆을 지나다가 잠시 눈길을 돌려 그 안의 다실을 들여다보자 거기에 파넬의 형 존 하우어드 파넬이 커피를 마시면서 혼자 앉아 한가하게 체스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존 파넬은 애국투사 파넬이 서거한 직후에 총독부에 매수되어 더블린 시경국장 감투를 얻어 쓴 못난 형의 전형 같은 존재이다(Gifford 172). 우리 속담대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격이라고나 할까. 블룸은 애국자 파넬을 생각하는 순간에 근무시간 중에 다실에 나와 있는 그의 형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저기에 그 양반이 있군. 파넬의 형이. 동생의 생김새 그대로지. 눈에 선한 애국자의 모습. 그런데 이번도 우연의 일치지. 하루에도 어떤 사람을 수백 번이라도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제 만나기는 어렵다는데. 몽유병자가 아니고서는 말이지”(U 8. 502-04).

둘째는, 문예부흥 운동의 주도자의 하나이자 신비적인 시풍으로 유명한 현역 시인 러셀(George Russel: 필명 “A.E.”)(1867-1935)의 아베크 장면의 목격이다. 블룸은 트리니티대학 옆을 통과하기에 전에 『아이리시 타임즈』(*Irish Times*) 신문사 앞을 지나간 적이 있다. 그는 그때 리찌 트윅(Lizzie Twigg)이란 처녀와 저명한 현역 시인 조지 러셀을 머리에 떠올린 바 있다. 그가 그 신문에서 심심풀이로 문필력이 있는 타이피스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내었을 때, 리찌라는 여성이 “나의 문학적인 역량은 저명한 시인 A. E.(조 러셀씨)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자천서를 보내온 적이 있기 때문이다(U 8. 326-32). 단순히 펜팔을 구하려고 낸 광고에 뜻밖에도 과분한 거물급 여성이 응해 와서(“시집을 들고 싱거운 차나 마시느라 머리 만질 시간은 없겠군”: U 8. 332-33) 그녀에게는 답신조차 보내지도 않고 교신 상대로 만만하게 보이는 현재의 마르다(Martha Clifford)로 결정하였다. 그에게 그런 일이 있게 한 신문사 앞을 지나자 지난날의 그 일이 생생하게 머리에 되살아 난 것이다. 그런데 그가 존 파넬을 본 제과점을 막 지나 나소가를 건너려 할 때 신비주의 시풍으로 소문난 러셀이 젊은 여성과 고답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연석을 따라 그를 앞질러 걸어가는 것이 눈에 보인다. 러셀은 더부룩한 수염에다 그가 애용하는 자전거를 밀고 리찌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나란히 빠른 걸음으로 그를 제치고 걸어간다(U 8. 523-24). 블룸은 점심식사를 할 마땅한 식당을 찾아 시내의 변화가를 걷는 동안 채 10분도 되지 않는 사이에 파넬의 형에 이어 벌써 두 번이나 우연의 일치를 체험한다. “그런데 저 양반이 또. 자 이젠 그야말로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벌써 두 번째야. 앞으로 닥칠 일은 그림자부터 먼저 드리운다더니. 저명한 시인

조 러셀씨의 인정이라. 그렇다면 그와 동행을 하고 있는 저 여성이 러셀 트웬이겠지. A. E.라, 그게 무슨 뜻일까? 아마 이니셜이겠지... 그는 무슨 말을 하고 있었을까? 스코틀랜드인의 말투로 세계의 종말을... 불가사의한 그 무엇을: 상징주의를 ... 그녀는 그것을 죄다 받아쓰고 있겠지. 입은 굳게 다물고, 저 양반의 문학 활동을 돕기 위하여”(U 8. 525-32).

셋째는, 스티븐을 산부인과 병원에서 우연히 대면하는 일이다. 블룸은 그날 낮에 거리에서 우연히 맞닥뜨린 브린 부인으로부터 옛날 이웃에 살던 퓨어포이 부인(Mina Purefoy)이 심한 산통으로 병원에 입원중이라는 소식을 듣고(U 8. 281-82) 그날 밤늦게 그녀를 위문하러 산부인과 병원을 방문한다. 간호원의 안내로 휴게실로 들어간 그는 거기서 의학생 친구들과 취중에 토론을 주도 중인 스티븐과 그 날 처음으로 우연히 부닥뜨린다. 스티븐 바로 옆에 앉게 된 그는 첫눈에 그에게 친밀감을 느낀다. “그리하여 레오폴드선생은 사이먼선생과 그의 영식인이 젊은 스티븐에게 절친한 우정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여 앉았다. ...사랑은 분명히 그를 방랑하도록 부추겼으나 연민의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로 하여금 거기를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U 14. 197-201).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그는 박식한 스티븐이 마치 친자식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의 현재의 무절제한 생활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U 14. 271-76). 블룸이 오랜 산고 끝에 아들을 분만한 퓨어포이부인에게 축하인사를 하는 사이에 스티븐 일행은 병원을 빠져나가 근처의 술집에서 한 순배 더 한 뒤에 매춘가로 달려간다. 이를 뒤에 안 그는 전차를 서둘러 타고 거기로 뒤쫓아 간다. 스티븐을 찾아 홀로 윤락가를 헤매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 “내가 왜 그를 찾아다니고 있을까? 하지만, 그 친구가 그 또래 중에서는 가장 나은 놈이지. 만일 내가 보포이 퓨어포이부인에 관한 소식을 듣지 않았더라면 병원에 갔을 리도 없고, 따라서 그 친구도 만났을 리가 없지. 이것이 다 운명(Kismet)이야”(U 15. 639-41). 스티븐이 영국 병사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들에게 얻어맞아 길바닥에 쓰러지자 블룸은 그의 옆에 지쳐 서서 그를 보호한다. 스티븐이 의식을 회복하자 그는 그를 부축하여 심야에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다. 도중에 스티븐의 허기와 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잠시 들린 포장마차에서 그는 “예기치 않은 기회”에 스티븐을 만난 “이득”을 장황하게 설명한다. “비범한 재능을 가진 인물을 알게 된 것”은 “일종의 일류 정신 강장제”로, “지적 자극”을 유발한다면서 “우연한 만

남”(coincidence of meeting)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구성하는 작은 카메오 보석(miniature cameo)”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생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립 보포이씨처럼 행운이 닥칠지도 모르므로,” 「역마차의 오두막에서의 나의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단편을 써보겠다는 말도 곁들인다(U 16. 1216-32).

블룸이 겪는 우연의 일치는 사람들의 조우로 끝나지 않는다. 다른 형태의 우연을 더 많이 경험한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그가 오먼드 호텔에 도착하여 식당에서 저녁을 들면서 펜 친구 마르다에게 아침에 받은 편지의 답장을 쓰려는 순간, 식당 바로 옆의 바에서 사이먼의 노래 소리를 듣는 경우이다. 술꾼들의 권유로 사이먼이 부르기 시작하는 노래의 곡목이 공교롭게도 오페라 『마르타』(Martha)의 일부인 “마파리”(M'appari)이다. “*마르타라니*.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을까. 마르다에게 편지를 쓰려는 찰나인데. 마르타의 주인공 리오넬의 노래를 부르다니. 이름이 멋지기는 하군. 마르다에게 편지를 쓸 수 없군... 이름이 이렇게 같다니: 마르다라는. 참으로 이상한 일만 생기는구나! 오늘은”(U 11. 713-16). 블룸이 그날 겪은 우연의 일치 중에서 마르다의 이 동음이어(homonymity)가 너무도 신기하였던지 블룸의 날을 마감하는 「이타카」장에서 이 장의 조정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 동음이어는 정보와 우연의 일치와 직감 중에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았는가?” 여기에, 블룸을 대신한 조정자는 조금도 서슴지 않고 “우연의 일치”에 있다고 즉시 자답한다(U 17. 633-35).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블룸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우연의 문제는 라이언즈(Bantam Lyons)의 오해로 빚어지는 “스로우어웨이”(T/throwawy) 모티프와, 블룸이 무덤에서 언뜻 본 “비웃 입은 사나이”(the man in macintosh)의 모티프다. 이 글에서는 이 두 모티프를 집중 거론하려 한다. 조이스는 아무런 까닭 없이 그토록 많은 우연의 일치를 텍스트에 뿌려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블린 사람들』의 「뜻밖의 만남」(An Encounter)에서 소년으로 하여금 미처 몰랐던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깨닫게 하였듯이 조이스는 여기서도 독자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대표적인 우연의 두 사례의 점점을 통하여 조이스가 숨겨 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캐어 보는 것이 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2. 조이스의 부재의 수사학

우연의 주제를 대변하는 “스로우어웨이”와 “비웃 입은 사나이”의 모티프는 다른 단편적인 우연의 일치들과는 달리 “부재의 수사학”(rhetoric of absence)이라는 서술 전략을 통하여 전개된다. 부재의 수사학은 이 두 모티프에 국한된 전략은 물론 아니지만 이 두 주요 문제는 이 서술전략을 통하여 펼쳐짐이 분명하므로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용어의 의미부터 먼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조이스는 텍스트가 저자의 간섭 없이 저절로 굴러가는 듯이 보이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법을 구사한다. 의식의 흐름, 자유간접담론, 현현(epiphany), 조정자 이용의 수법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그는 필요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단서를 빠뜨리는 틈(gap; hiatus) 또는 생략(ellipses; skips)의 기법을 즐겨 쓰기도 한다. 전후 문맥상 꼭 있어야 할 설명이나 증거의 제시 없이 그냥 어물쩍하게 넘어가는 조이스의 이 틈의 전략을 학자들은 “침묵의 수사학”(Rhetoric of Silence)(Kenner 393) 또는 “부재의 수사학”(Herring 3)이라고 부른다. 케너가 “침묵의 수사학”이라 부르는 이유는 작가가 결정적인 순간에서 입을 다물어 버린다고 보기 때문이고, 헤링이 “부재의 수사학”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작가가 뚜렷한 증거를 외면하거나 숨긴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조이스는 담론의 전개 고비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몸을 완전히 감추는 전략을 즐겨 쓴다는 점은 분명하다.

헤링에 의하면, 조이스의 부재의 수사학은 「자매들」(『더블린 사람들』의 첫 스토리)의 첫 문단에 나오는 “경절형”(gnomon)이라는 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서술자인 소년의 머리 속에 “마비”와 “성직매매죄”란 말과 함께 떠오르는 이 “경절형”이란 낱말은 유클리드 기하학에 나오는 도형으로, 평행사변형에서 그 한 각을 포함한 닮은꼴을 잘라낸 나머지 부분을 뜻한다. 한 도형에서 한쪽 모서리가 없는 도형은 완전한 도형일 수 없으므로 조이스는 이 기형적인 도형을 부재의 상징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불완전한 세상을 그리는 데는 이 도형의 상징성이 안성맞춤이라고 판단하고 텍스트에서 자신의 몸을 숨기는 서술 전략으로 “부재의 수사학”을 개발하였다. 그는 그 구체적인 서술 방법으로 “생략, 의미상의 틈, 의미 있는 침묵(significant silences), 공허한 대화(empty and ritualistic dialogue)” 등의

기법을 활용하기로 하였다(4). 불완전한 세상은 불완전한 (“경절형적”) 언어로 그려야 마땅하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그의 부재의 수사학은 그의 작품 전역에 걸쳐 널리 이용되어 있다.

『울리시스』에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중요한 주제상의 문제는 부재의 수사학을 통하여 펼쳐진다. 물리와 스티븐에게는 생일이 나타나 있으나 블룸에게는 그런 힌트조차 없고, 텍스트에 수두룩한 오식과 탈자도 어쩌다가 그런 잘못이 생겼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블룸이 거티에게 쓰려했던 “나는 ...”(U 13. 1258-64)이라는 말의 다음 말은 비어 있고, 브린이 받은 엽서에 적힌 “U. p: up”(U 8. 258)의 뜻도 일체 언급이 없거니와 그 엽서의 발신인이 누구인지는 더욱 말이 없다. 실성한 브린은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면서 종일토록 그 발신인을 찾아 시내를 헤매나 결국 허탕을 치고 만다. 블룸은 부인에게 “윤회”(metempsychosis)의 의미를 열심히 설명하나 그녀가 그에게 그 말의 뜻을 물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U 4. 339-43), 그는 아내가 “오후 4시에”(U 11. 188; 392) 보일란과 간통을 하리라 걱정하나 그녀는 그에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직접 말한 적도 없다. 그녀는 아침에 보일란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다만 “보일란이 연주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집으로 온다”(U 4. 312)고 말했을 뿐이다. 물리의 내면독백으로 이루어진 마지막 「페넬로페」장은 그녀가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다음 날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는 그녀더러 그것을 준비하라고 직접 말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말이자 『울리시스』의 마지막 말이기도 한 “예스”(U 18. 1609)의 의미도 긍정의 뜻인지, 부정의 뜻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이 텍스트의 가장 큰 사건인 스티븐과 블룸의 우연한 만남도 성공적으로 끝나는지 결렬로 끝나는지 조이스 자신의 말이 전혀 없다. 대충 이 정도만 보더라도 조이스는 수많은 경우에 부재의 수사학을 구사하여 독자들의 궁금증을 얼마나 크게 유발하고 있는가를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스로우어웨이” 모티프와 “비웃 입은 사나이”의 모티프로 부재의 수사학이 쓰인 대표적인 사례임은 물론이다. 지금부터 이 두 문제의 전개의 전모를 차례대로 더듬기로 한다.

3. “그걸 그냥 가져. 이제 막 버리려던 참이었으니까”(U 5. 537-38): “스로우어웨이”의 모티프

블룸은 아침에 집을 나와 목욕탕으로 가는 길에 비누를 산 약국 근처에서 벤텀 라이언즈와 마주친다. 경마에 돈 걸기를 좋아하는 라이언즈는 블룸의 겨드랑이에 낀 신문을 보고는 “그것이 오늘 신문이냐”면서 “좀 보여 달라”고 한다. 그날 영국 애스켓에서 열리는 골드컵 쟁탈 경마대회에 출전하는 프랑스 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블룸은 “이제 막 버리려(throw it away)하던 신문”이니만큼 “그것을 그냥 가져라”면서 준다. “애스켓. 골드컵이라. 가만 있자, 잠깐만. 맥시멈 2세”라고 중얼거리면서 블룸이 주는 신문을 뒤적이던 라이언즈는 갑자기 표정이 이상해지면서 “방금 뭐라고 그랬지?”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묻는다. 블룸은 아까 한 말을 되풀이한다. “신문을 그냥 가져. 방금 버리려고 하던 참이었으니까”(I say you can keep it. I was going to throw it away that moment.). 순간 야릇한 표정을 짓던 라이언즈는 보던 신문을 도로 주면서 “어디 한번 해봐야지. 자, 고마워”라는 앞송달송한 말만 남기고 도망치듯 사라진다(U 5. 520-42).

조이스는 여기서 라이언즈가 왜 아리송한 말을 하면서 부리나케 가버리는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어디로 무엇 하러 급히 사라지는지,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독자로 하여금 라이언즈가 블룸의 신문을 “스로우어웨이(버리려)하려던 참”이라는 말을 무언가 잘못 이해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게 할 뿐이다. 조이스는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 이유가 제물에 드러나도록 내버려둔다.

블룸의 날 오후 3시에 영국 애스켓에서 열리기로 되어있는 골드 컵 차지 경마 대회는 더블린 장안의 큰 화제였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로였다. 신문사도 식당도 술집도 모두 다 그러했다. 『아에올로스』장의 “우승마 맞이하기”(SPOT THE WINNER) (U 7. 386) 부분이 이를 대변한다. 이 장의 무대는 정오경의 신문사이고, 이 표제 부분의 주인공은 레너헌이다. 경마 투전꾼이자, 일간지 『프리먼즈 저널』에서 매주 한번씩 발행하는 자매지 『스포츠』(Sport)의 기자이기도 한 레너헌은 갓 인쇄된 『스포츠』지의 경마 정보 특집호를 한 아름 들고 『프리먼즈 저널』사의 현관에 나타나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면서 애스켓 골드 컵을

거머쥔 우승마는 「셉터」(Sceptre)일 거라고 호언한다. “골드 컵을 확실히 차지할 말이 어떤 말인지 알고 싶은 사람 있어? 그건 오 매든이 물게 될 셉터임이 분명해”(U 7. 388-90). 경마 특보가 나오기를 고대하던 배달원들이 주간지를 서로 집으려고 달라 드는 바람에 현관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다. 맥휴 교수가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녀석들을 불러 야단을 치나 소년들은 저마다 자기 탓이 아니라고 발뺌하기에 바쁘다. 이러한 복새통과는 대조적으로, 경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블룸은 바깥의 소동은 아랑곳없이 안쪽 편집실에서 업무상의 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장님은요...? 어디로 가셨다고요? 아하! 어느 경매실 말씀이시죠? ... 알았어요... 곧 만나러 가겠어요”(U 7. 391-413).

점심때의 식당에서도 화제는 골드 컵이었다. 오후 1시경, 데이비 번즈에서 경마의 내기꾼인 라이언즈가 친구들과 예상 우승마를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혼자 먼저 와서 식사를 마친 블룸이 그들 옆을 지나 식당 밖으로 빠져 나간다. 그러자 라이언즈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어 “스로우어웨이”에 돈을 걸도록 나에게 정보를 귀뜸해 준 사람은 바로 저 친구”라고 털어놓는다(U 8. 1023). 라이언즈의 이 말로 미루어 보아 아침에 블룸이 신문을 그냥 가지라고 한 말은 흘려버리고 “스로우어웨이”하러던 참이라는 말만 귀담아 듣고 이를 경마 정보의 제공으로 착각한 것 같다. 그러나 블룸은 그의 이런 착각을 알 턱이 없다. 조이스는 블룸이 모르는 가운데 라이언즈의 오해대로 사건이 굴러가도록 계속 입을 다문다.

라이언즈는 아침에 블룸을 조우하기 전까지는 프랑스 말 ‘맥시멈 2세’에 돈을 걸려하였으나 블룸으로부터 “영감의 빛을 받고는”(U 17. 339) “스로우어웨이”에 베팅하려 한다. 그러나 길 가다가 역시 우연히 마주친 레너헌의 강력한 만류로 다시 생각을 바꾸어 “셉터”호에 돈을 걸기로 결심한다(U 10. 517-19). 레너헌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만나는 사람마다 출전마 “셉터”에 돈을 걸도록 권한다. 그는 “셉터”호가 낙승하리라(U 11. 374) 굳게 믿기 때문이다. 그는 보일란도 그의 몫은 물론이거니와 물리 몫으로도 각각 2파운드씩 “셉터”에 베팅하게 한다(U 12. 1222-23). 레너헌이 “셉터”를 예상 우승마로 확신하는 근거는 그 날짜의 조간지에 실린 경마정보란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1904년 6월 16일자 아침 신문『프리먼즈 저널』지(블룸이 라이언즈에게 보여준 바로 그 신문이다)의 7면에 (“Tips from Celt: Gold Cup – Sceptre”라는 제하에) 당일 애스컷 경마대회에 출전하는 말들의 정보가 보도되었다. 그 기사에 의하면, 12필의 출전마 중에서 승률이 가장 높은

말은 마주(馬主)가 바스(Mr W. Bass)인 “셍터”이고, 그것이 아주 낮은 말은 마주가 알렉산더씨인 “스로우어웨이”로 나와 있다(Gifford 98). 경마지의 기사인 레너헌이 아침에 그 기사를 읽지 않고 집을 나왔을 리는 없다.

그러나 오후 늦게 애스켓에서 날아온 뉴스에 따르면, 승산이 없는 말로 알려진 “스로우어웨이”가 예상을 뒤엎고 우승을 차지한다. 대회가 끝난 직후 오후 5시경 바니 키어넨 술집에 모인 술꾼들의 대화에서 그 결과가 잘 드러난다.

- 자네 무슨 일이라도 났나, 나는 레너헌에게 말한다. 1 실링을 떨어뜨리고 6펜스 밖에 찾지 못한 놈의 표정을 하고 있으니 말이야.
- 골드 컵 때문이지, 다른 일이 있겠어, 그는 말한다.
- 어느 말이 이겼어요, 레너헌씨? 바텐더 테리가 묻는다.
- 스로우어웨이가, 그는 말한다, (셍터와의 확률) 20대 1에 불과하던 인기가 형편없던 말이 말이야. 나머지 말들은 그 근처에도 못 갔대.
- 그런데 바스씨의 말(셍터)은요? 테리가 묻는다.
- 열심히 달렸겠지, 그는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헛물만 켜고 말았어. 보일란도 나의 귀땀으로 그와 그의 숙녀친구 뒤통으로 셍터에다 2 파운드씩 걸었는데.
- 나는요, 테리는 말한다, 폴린씨의 권유로 진판텔호에다 5실링을 태웠는데요. 하우어드 드 윌든 경의 말에다 말입니다.
- 승률이 20대 1에 지나지 않던 것이, 레너헌은 말한다. 우리는 이제 볼 장 다 봤어. 스프로우어웨이라, 그는 말한다. 그 놈이 골드 컵을 차지하다니, 우리는 발가락 티눈 얘기나 하는 길 밖에 다른 도리가 있나.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셍터로다(U 12. 1215-28).

경마의 경자도 모르는 블룸은 그들의 맥 빠진 대화를 무심히 듣고만 있다가 잠시 다녀올 데가 있다면서 자리를 뜬다. 근처의 재판소에 마틴 컨닝햄 등의 친구들이 와 기다리고 있는지 보고 오겠다는 것이다. 블룸이 자리를 비우자 레너헌은 블룸이 “스로우어웨이”에 베팅을 하여 거액의 당첨금을 따게 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그 친구는 5실링을 걸고 1백 실링을 거머쥔 것은 아무튼 틀림없는 일이야. 그는 더블린에서 돈을 딴 유일한 사람이야. 그야말로 그는 다크 호스야”(U 12. 1555-57). 그러면서 그는 블룸이 슬그머니 자리를 뜨는 것은 법원을 핑계로 근처의 마권 영업소에 가서 당첨금을 찾기 위해서라고 떠든다(U 12. 1550 -51). 그러자 「키클롭스」장

의 1인칭 화자는 불륨이 술을 사지 않으려고 일부러 자리를 피했다고 거든다.

재판소라니, 호주며니마다 금과 은으로 불룩하게 늘어뜨리고서는. 경을 칠 비
열한 사나이 같으니. 선뜻 우리에게 술이나 한턱 낼 일이지. 한잔 내는 것이 그
토록 무서운가! 너 같은 놈이 있기에 다들 유대인이라고 욕을 하는 거야! 세상
에 보이는 건 자기 이익 밖에 없지. 똥간의 쥐처럼 약은 짓을 하다니. 5실링을
걸고 100 실링을 따고서도 말이야 (U 12. 1759-61).

공짜 술을 밝히는 국수주의자 “시민”은 불륨이 되돌아오자 그에게 슬그머니 육
체적인 위협을 가하려한다. “스로우어웨이”에 돈을 걸어 거액을 따고도 술을 사지
않으려고 피했다는 주변의 말에 화가 난 그는 개를 시켜 불륨을 공격하려 한다. 분
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 챈 커닝햄을 비롯한 그의 친구들이 재빨리 불륨을 데리
고 나와 그들이 타고 온 2륜 마차에 태운다. “시민”은 동료 술꾼들의 제지를 뿌리
치고 문까지 따라 나와 영문도 모르고 마차에 서 있는 불륨에게 유대인을 저주하는
욕설을 퍼붓는다. “유대인놈아, 잘 먹고 잘 살아라!” (Three cheers for Israel!)(U 12.
1791).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날벼락 같은 모욕까지 당한 불륨은 불현듯 화가
치솟아 격렬한 어조로 응수한다. “멘델스존도 유대인이었고 칼 마르크스와 메르카
단테(Mercadante)와 스피노자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구세주 그리스도도 유대
인이고 그의 아버지도 유대인이었어요. 당신의 하느님도... 그리스도도 바로 나처
럼 유대인이었어요”(U 12. 1804-09). 그러자, “시민”은 “성스러운 이름을 더럽히는
저 경철 유대인놈의 꼴통을 부서뜨리겠다”(U 12. 1811)면서 비스킷 깡통을 불륨을
향해 던진다. 그러나 취중에 던진 것이라 빗나가고 만다. 깡통이 길바닥에 떨어지
며 빗나가자 “시민”은 개를 시켜 도망가는 마차를 뒤쫓게 한다.

조이스는 불륨이 이렇게 봉변을 당하도록 진상을 여전히 말하지 않는다. 불륨
이 친구들의 도움으로 마차를 달려 “시민”의 공격을 피한 다음, 그날 밤늦게 스티
븐과 함께 들른 포장마차에서 그날의 석간신문을 보고서야 그 까닭을 스스로 알아
차리게 한다. 불륨은 기진맥진한 스티븐을 데리고 집으로 가던 길에 스티븐의 해갈
을 위하여 잠깐 들른 역마차의 오두막에서 그와 허물없는 대화를 시도한다. 그러나
스티븐이 아직 혼미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보이자 그는 그의 팔꿈치 옆에
놓인 석간신문 『이브닝 텔레그래프』지에 우연이 눈이 간다. 그는 그것을 집어 들고
한 장씩 넘기다가 3면에 실린 “애스컷 경마대회, 골드 컵. 승산 없는 말 ‘스로우어

웨이'의 승리”(U 16. 1242)라는 표제의 기사에 눈이 멎는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다. 그날 오후 3시에 애스콧에서 개최된 연례 경마대회에서 승률이 저조한 말로 알려진 출전마 “스로우어웨이”가 예상을 뒤엎고 우승을 차지하여 1,000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황금배에다 부상으로 정금 3,000파운드의 상금을 받았다. 2등은 마주가 하워드 드 윌슨인 “진판델”(바텐더 테리가 5실링을 걸었다던)이 차지하고, 3등은 마주가 W. 바스인 “셉터”(레너헌이 우승마리라 장담했던)가 차지하고, 프랑스의 출전마 “맥시멈 2세”(라이언즈가 아침부터 큰 관심을 가졌던)는 4위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의 예상 승률은 “셉터”가 단연 압도적이었다. 이 말과 “진판델”과의 승률은 5대 4였고 “스로우어웨이”와의 승률은 20대 1이나 되었다(U 16. 1274-89). 그러나 예상외로 다크 호스가 우승을 차지하자 석간지에서 “스로우어웨이”의 승리라고 대서특필한 것이었다¹⁾. 블룸은 이 기사를 우연히 보고서야 술집에서 술꾼들이 나누던 말과 그가 당한 봉변의 까닭을 비로소 알아챈다.

하루의 바깥일을 마치고 귀가한 블룸은 잠자리에서 “스로우어웨이”(T/throwaway)란 말과 관련된 일들을 차분하게 돌이켜 본다. 그의 “우연의 일치의 회고”(Reminiscences of coincidences)는 그가 겪은 가까운 사례부터 시작하여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맨 먼저 그는 역마차의 오두막에서 『이브닝 텔레그래프』를 우연하게 읽은 일을 회상한다. 여기서 「이타카」장의 조정자는 우연의 일치를 “소설보다 더 기묘한 진실”(U 17. 323)이라고 말한다. 블룸이 우연하게 신문을 보지 않았더라면 “스로우어웨이”에 숨은 진실은 발견할 길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론, 리틀 브리튼가의 바니 키어넨 술집에서 있었던 일을 회고한다. 레너헌이 골드 컵 경기의 결과를 알리던 장면과 “시민”이 모욕적인 연사를 퍼부으면서 육체적 위협을 가하려던 장면의 연상에 이어, 듀크가의 데이비 번즈에서 플린이 식당 주인 번즈에게 경마의 전망을 묻던 일을 돌이킨다. 그런 다음, 오코넬가에서 어느 Y.M.C.A. 청년이 부흥회를 알리는 선전 뼈라(throwaway)를 손에 잡혀주던 일을 떠올린다. 그는 물론 그것을 “곧 던져버렸다.”²⁾ 마지막으로, 아침에 약국 앞

1) 기포드에 의하면 이 부분의 내용은 이 날짜의 석간 「이브닝 텔레그래프」지의 기사 내용 그대로이다. 이 기사가 보도된 쪽수(3쪽)도 같고, 타이틀도 거의 같다. 텍스트엔 “승산이 없는 말 ‘스로우어웨이’의 승리”임에 반해 이날 신문에선 “승산 없는 말이 우승하다”라고 한 것이 다를 뿐이다(552). 우리는 여기서 조이스가 텍스트의 집필을 위하여 이 날짜의 일간지를 얼마나 철저히 활용하였는가를 잘 알 수 있다.

2) 뼈라가 throwaway인 이유는 한번 보고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블룸은 오코넬로 근처

에서 만난 밴텀 라이언즈가 신문을 보여 달라기에 그냥 가지라고 주었더니 그것을 되돌려 주면서 야릇한 말만 남기고 목욕탕 쪽으로 부리나케 사라지던 일을 회상한다. 블룸은 여기서 라이언즈의 “어디 한번 해봐야지”라는 말은 그의 “스로우어웨이”라는 말을 “예언의 언어로 아로새겨진 경마경기의 비결”로 착각한 데서 비롯된 말임을 확실히 깨닫는다(U 17. 323-41).

블룸은 라이언즈에게 무심코 한 말이 경마의 정보로 오해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경마에 도무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스로우어웨이”라는 출전마는 듣기조차 한 적이 없다. 밤중에 석간을 우연히 보고, 집에 와서 하루 일을 성찰한 뒤에야 그가 겪은 봉변의 까닭을 비로소 알게 된다. 그가 당한 봉변은 어이없게도 자신의 말이 화근이 되었음을 발견한다. 결과적으로 자기가 라이언즈에게 경마의 오보를 제공한 꼴이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말로 빚어진 이 뜻밖의 해프닝 때문에 크게 괴로워 하다가 「이타카」장의 조정자의 지적대로 다음과 같은 생각에 이르러서야 그는 가까스로 마음을 가라앉힌다.

어떤 적절한 생각으로 그의 불안을 진정시켰는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그 사건이 갖는 의의는 마치 전기 방전 사고에 수반하는 음향적인 폭음(acoustic report)처럼 가변적(variable)이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원래 성공적인 이해에서 비롯되는 예상 손실액의 총액의 이해에 실패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질적인 손실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으로(U 17. 342-47).

이로써 “스로우어웨이”의 모티프는 끝이 난다. 블룸이 언어는 가변적이어서 이해하기도, 평가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으로 그의 불안한 마음을 간신히 진정할 때까지 조이스는 일체 말이 없다. 블룸이 스스로 “스로우어웨이”에 얹힌 의미를 깨닫도

를 지나다가 어느 청년으로부터 받은 부흥회의 빠라를 잠시 읽어본 뒤에 리퍼강에다 던져버린다(U 8. 57-58). 물위에 떠서 강을 따라 흘러가는 전단을 보면서 그는 인생을 흐름(stream)과 같다고 생각한다(U 8. 94-95). 그가 던진 이 빠라는 한 척의 조카배가 되어 강물을 따라 동쪽을 향해 바다로 떠내려간다(U 10. 294-97). 바다 위에 곧 표류하게 될 이 전단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을 리가 없다. 글자 그대로 표류를 계속할 뿐이다. 이 사실을 두고 몽크(Leland Monk)가 하는 다음과 같은 지적은 참으로 적절해 보인다. “물 위에 떠도는 이 빠라는 문자 그대로 표류하는 기표(floating signifier)이다. 빠라가 바다를 향해 떠내려간다는 것은 『울리시스』의 언어가 표류상태에 있음을 환유적으로 보여주는(metonymic drift) 좋은 예이다”(137).

록 조이스는 끝까지 침묵을 지킨다. 그가 부재의 수사학을 통하여 “스로우어웨이”의 문제를 펼친 것은 블룸이 고심 끝에 도달한 결론처럼 독자들이 언어의 불확실성을 발견토록 하는 것이 그의 소리 없는 메시지가 아닌가 한다. 그냥 가지라는 블룸의 알맹이 말은 빠지고 “스로우어웨이”하려던 참이라는 결다리 말만 경마 정보로 오인되어 그를 신체적인 공격의 위기로 몰아넣다니, 이는 언어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산 예가 아니고 무엇인가. 블룸이 얻은 결론은 우리로 하여금 멀리는 『성경』상의 씨뿌리기의 우화(3), 가깝게는 자크 데리다의 산중(dissemination)의 이론을 연상케 한다. 둘 다 말의 전달 과정을 씨뿌리기에 빗대어 완벽한 메시지의 전달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블룸이 “스로우어웨이” 사건을 통하여 얻은 결론은 조이스의 언어관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텍스트의 여기저기에 등장인물의 발언과 의식 등을 통하여 산발적으로 드러낸 그의 언어관을 종합해 보면, 그는 언어란 믿을 수 없는 변덕꾸러기라는 견해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리는 사기꾼”(Sounds are impostures) (U 16. 362)이라는 스티븐의 말에서 입증된다. 『에우마에우스』장에서 위인들의 이름에도 고정적인 의미가 없다는 말끝에 스티븐으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은 언어의 불확정성을 겨냥한 그의 언어관의 대변이 아닐 수 없다. 글과 더불어 감정의 표현 수단인 소리가 고착된 의미 없이 사기꾼처럼 농간이나 부린다는 말은 언어의 임의성 내지 유희성을 꿰뚫는 말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언어관은 블룸이 포장마차에서 읽은 『이브닝 텔레그래프』지를 이 장의 조정자로 하여금 “생생한 거짓말쟁이”(tell a graphic lie)(U 16. 1232)라고 표현하게 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텔레그래프”의 발음을 편으로 표기한 이 말은 그가 이번에는 조정자의 손을 빌어 문자도 소리와 마찬가지로 역시 믿을 수 없다는 그의 언어관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

이러한 문자의 임의성은 『이브닝 텔레그래프』지에 실린 “고(故) 패트릭 디그넌씨의 영결식” 기사(U 16. 1245-62)에도 잘 나타나 있다. 애스켓 경마대회 결과

3) 『마태복음』 13장 3-23절과 『마가복음』 4장 1-20절 참조.

4) 조이스가 『피네건의 밤샘』에서 English language(영어)를 “jinglish jangle”(떨랑대는 짤랑어?)(FW 275. n 6)로, letter(문자)를 “litter”(잡동사니; 쓰레기; 난잡)(FW 93. 24)로, jangle of words(말다툼)을 “jungle of words”(숲속의 미로)(FW 112. 4), 등으로 표기하는 데서도 그의 언어관을 엿볼 수 있다.

와 함께 보도된 이 기사에는 “포복절도할 얼토당토않은 오보와 오식”(nonsensical howlers of misprints)(U 16. 1267)이 수두룩하다. 영결식 참석자 명단에 참석하지도 않은 인물이 둘이나 들어 있다. “문학사 스티븐 데덜러스”와 C. P. 므코이가 그들이다. 므코이는 부득이한 일로 참석을 할 수 없으니 조문객 명단에 이름이나 넣어달라고 기자에게 부탁한 적은 있지만 스티븐은 디그넨 장례식의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 망인과는 어떤 관계인지 아무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비웃 입은 사나이”는 이름도 없이 그저 “민토시”(M'intosh)로 버젓하게 실려 있다. “C. P. 므코이”의 이름이 “CP 므코이”로 오기된 것까지는 좋으나 불륨의 이름은 “I”자가 누락된 채 “L. 붐”(Boom)으로 잘못 적혀 있다⁵⁾. 불륨은 이 오식을 보는 순간 “적잖이 화가 났지만” 참석하지도 않은 인물들이 버젓이 명단에 오른 것이 하도 우스워서 옆에서 연방 하품만 하고 있는 당사자의 하나인 스티븐에게 그 기사를 직접 보여주기까지 한다(U 16. 1248-67). 이러한 오보와 오식은 신문 / 문자가 “생생한 거짓말쟁이”임을 보여주는 실례가 아니고 무엇인가.

텍스트에 나타난 사례를 통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조이스의 언어관은 불륨이 “스로우어웨이”의 모티프를 통하여 마침내 발견한 언어관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므로 조이스가 부제의 수사학을 동원하여 “스로우어웨이” 모티프를 펼친 것은 독자들이 불륨처럼 스스로 언어의 불확실성을 깨치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라캉의 말대로, 언어는 무의식처럼 구조지어져 있음(20)을 말이다.

4. “도대체 저 비웃 입은 사나이는 어디서 튀어나왔을까?”(U 6. 826): “비웃 입은 사나이”의 모티프

불륨이 “비웃 입은 사나이”를 처음 본 것은 디그넨의 장례식에 참가한 오전

5) 불륨의 이름에서 “I”자의 탈자에 대하여 블래마이어스(Blamires)는 흥미 있는 추측을 한다. 그에 의하면, 불륨이 마르다로부터 받은 펜 레터에 “다른 말(other word)은 싫어요”라고 해야 할 것을 “다른 세상(other world)은 싫어요”라고 잘못 타자되어있다(U 5. 245). “word”라는 단어에 “I”자가 실수로 추가된 것이다. 불륨의 이름이 “Boom”이 되고 만 것은 “I”자가 마르다의 편지로 잘못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한다(Blamires 199). 맥카시(Patrick A. McCarthy)는 각도를 달리 하여 “불륨의 이름이 붐으로 둔갑한 것은 그의 성격의 복잡성과 그가 수행하는 역할의 다양성을 암시한다”(46)고 보기도 한다.

11시경 공동묘지에서였다. 경내의 교회에서 영결미사를 마치고 디그넬의 관이 장지에 운구되었을 때 “비웃을 입은 깡말라 보이는 얼굴이 같은 자”가 갑자기 눈에 뜨인다. 그를 보는 순간 블룸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여 견딜 수 없다. “저기 비웃을 입고 있는 저 깡말라 보이는 얼굴이 같은 자는 누구인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견딜 수 없군. 돈을 몇 푼 들여서라도 저 자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으련만.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항상 불쑥 잘 나타나거든(U 6. 805-07).

디그넬을 매장하기 직전 그를 위한 마지막 고별의 순서가 되자 비웃 입은 사나이는 블룸과 나란히 같은 줄에 선다. 블룸은 그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진다. “블룸은 손에 모자를 벗어 들고, 행렬의 쑥 뒤에 서서 탈모한 머리수를 세어보았다. 열 둘. 나는 열 세 번째로군. 아니야, 저 비웃 입은 사나이가 열세 번째야. 13은 죽음의 숫자라지. 도대체 저 사나이는 어디서 튀어나왔을까? 분명히 성당의 영결식 때는 없었는데. 열세 번째라, 미신치고는 참으로 시시하다”(U 6. 824-27). 블룸은 이때 “비웃 입은 사나이”를 잠시 보고는 그를 다시 보지 못한다. 조이스는 블룸의 궁금증만 부추겨 놓고 그가 왜 묘지에 나타났는지, 나타났다가 무슨 일로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망인과는 어떤 관계인지조차도 입을 떼지 않는다. 우리는 블룸과 더불어 사건의 추이를 끝까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디그넬의 매장이 끝나자 조 하인즈는 그의 장례식 기사를 석간지에 보도하기 위하여 그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려 한다. 그는 수첩을 꺼내들고 블룸에게 세례명을 묻는다. 이에 블룸은 “레오폴드”라고 대답하고 나서 “므코이가 자기 이름도 명단에 넣어달라고 부탁하더라”는 말을 전한다. 이에 하인즈는 그의 이름도 받아 적으면서 그와는 잘 아는 사이라고 말한다(U 6. 880-84). 그러면서 그는 비웃 입은 사나이의 이름을 아느냐고 또 묻는다. 그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는 신문기자인 하인즈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 그런데 말씀이죠, 하고 하인즈가 말했다, 뱃을 입은 그 친구를 아세요, 뱃을 입고 저 저기에 있던 그 사나이 말입니다.

그(블룸)는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 비웃(Macintosh) 말씀이죠. 맞았어요. 나도 그를 보긴 봤는데, 블룸이 말했다. 그런데 그 사이 그는 어디로 사라졌죠?

- 민토쉬(M'Intosh)라, 하인즈는 갈겨쓰면서 말했다.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의 이름이지요?

그는 [대답을 기다릴 겨를도 없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어디론가 떠났다. -아니예요, 불륨은 몸을 돌려 멈추어 서서,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 봐요, 하인즈씨!

[그는] 듣지 못했어. 뭐라고? 그 친구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 아무런 흔적도 없이 ... 여기서 누가 그를 본 사람이 없을까? ...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다니. 도대체 그 친구 어떻게 된 사람이야? (U 6. 891-901).

여기서도 “스로우어웨이” 사건과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하인즈가 정체불명의 사나이의 이름대신 입은 복장의 이름을 몰라 찢찢매매갈 불륨이 비웃이라는 뜻으로 “macintosh”라고 하였더니 그는 이 말을 “민토시(M'Intosh)”로 잘못 알아듣고 그것이 그 사나이의 이름으로까지 착각한다. 불륨이 그게 아니라고 해명을 하려하나 그는 듣지도 아니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 그 바람에 비록 뒤의 일이지 않지만 석간신문의 디그넨 장례 기사에 “비웃 입은 사나이”가 “민토시”라는 이름으로 문상객 명단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스로우어웨이”의 경우와는 달리 그의 이름이 둔갑을 하였다 하여 불륨이 입는 피해는 없다. 하지만 묘지에서 잠시 본 “비웃 입은 사나이”의 정체가 온 종일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다. 길을 걷다가도 그를 몇 번이나 생각한다(U 11. 1250-51).

조이스는 불륨 몰래 각 장의 조정자의 손을 빌어 비웃 입은 사나이를 무시로 출몰케 한다. 나타날 때마다 행태를 달리 하게 하여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커녕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방랑하는 바위들」의 조정자는 이 날 오후 3시경, 총독 부부를 태운 마차 행렬이 도심을 통과할 때 “하부 마운트가에서 갈색의 비웃을 입은 한 보행자가 마른 빵을 씹으며 총독의 진로를 가로 질러 재빨리 다치지 않고 지나갔다”(U 10. 1271-72)고 하나, 하필이면 그가 왜 거기에 나타나며 마른 빵은 왜 씹는지, 일체 말이 없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재빨리 가는지 암시조차 하지 않는다. 오후 5시경 바니 키어넨 술집에서 불륨의 “사랑은 증오의 반대를 뜻한다”(U 12. 1485)라는 말이 떨어지자 「키클롭스」장의 조정자는 “사랑은 사랑을 사랑하기를 사랑한다. 간호원은 새 약제사를 사랑한다... 갈색 비웃을 입은 사나이는 죽은 숙녀를 사랑한다. 국왕 폐하는 여왕 폐하를 사랑한다”(U 12. 1493-99)는 사랑의 패러디를 늘어놓는다. 조정자는 여기서 왜 비웃 입은 사나이를 들먹이는지, 죽은 숙녀란 누구인지 역시 말이 없다. 장난기 있는 조정자의 이 패러디는 “죽은 숙녀”에 대한 궁금증까지 유발시킨다. 밤 10시경, 버크 술집(Burke's)의 종

업 시간이 임박했을 때 비웃 입은 사나이가 거기에 나타난다. 그가 나타났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으나 스티븐을 비롯한 주당들의 뒤죽박죽한 대화를 들어보면 그가 술자리에 끼인 것이 분명하다. 「태양신의 황소들」장의 조정자는 비웃 입은 사나이에 대하여 취객들이 떠들어대는 대화를 다음과 같이 들려준다.

어렵쇼, 비웃 입은 저기 저 사나이는 도대체 누구냐? 역경을 잘 돌파하는 연속 만화에 잘 나오는 부랑자지 뭐야. 그 녀석의 복장을 좀 봐. 저런, 저럴 수가 있을까! 저 녀석은 뭘 먹고 있지? 축제 때 무료 급식하는 쥐꼬리만한 양고기야. 아니야 보보릴이라는 영양 만점의 영국제 쇠고기 농축물이 틀림없어. 그걸 먹기를 엄청나게 좋아하거든. 자네 그 광포한 전사를 알고 있나? 리치먼드 정신 병원에 있던 그 기분 잡치는 녀석 말인가? 그게 아닐세! 그 녀석은 자기 페니스에 납으로 된 탄환 침적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했거든. 말하자면 일시적인 정신 이상자였지. 우리는 그 녀석을 뺑 배달원 바틀이라고 부르지. 여보게 이 친구야, 저 자는 한때 잘 나가던 시민이었지. 몸쓸 처녀와 결혼하는 바람에 저 사나이는 온통 누더기 신세가 되고 말았어. 그 여자가 줄행랑을 쳐버렸거든, 그 녀가 실제 도망을 갔더랬어. 여기서 잃어버린 사랑을 찾고 있지. 외로운 골짜기를 거니는 비웃 입은 사나이라고나 할까. 모두 잔을 비우고 잠자리로 가세요. 종업 시간입니다. 순경들 조심하시고요. 방금 뭐라고 그랬지? 자네 오늘 장례식에서 저 사나이를 봤나? 자네의 친구가 오늘 저승길로 갔어?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U 14. 1546-55).

조이스의 말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정자의 위와 같은 대화의 전달은 비웃 입은 사나이의 신비를 벗기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의 정체에 대한 혼란만 더욱 부채질한다. 여태껏 들어 보지 못한 말들이 밀도 끝도 없이 꼬리를 물고 있다.

비웃 입은 사나이는 한밤중에 불륨의 환상 속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한다. 「키르케」장의 환각의 복마전에서 불륨이 “새 불륨성지”(new Bloomusalem)의 건설을 선포하려는 순간 갈색 비웃을 입은 사나이가 뚜껑문(trapdoor)을 밀고 갑자기 나타난다. 그는 손가락으로 불륨을 가리키면서 군중을 향해 외친다. “여러분 저자의 말은 한 마디도 믿지 마세요. 저 사나이는 레오폴드 민토시랍니다, 약병 높은 방화범이죠. 그의 진짜이름은 히긴즈(Higgins)이지요.” 자기를 민토시니 방화범이니 하는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하면서 그의 이름마저 잘못 부르는 바람에 (히긴즈는 창녀 이름이거나 자기 어머니의 처녀 시절 성이다) 화가 치민 불륨은 그를 당장 사살하도록 명령한다. “저놈을 쏘아라! 개만도 못한 예수쟁이 같으니! 민토시니 뭐니

이젠 집어 치워!” 블룸의 명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한 방의 포성과 함께 비웃 입은 사나이는 사라지고 만다”(U 15. 1542-65). 블룸의 환각 속에 비웃의 사나이가 보이는 것은 그간 쌓인 궁금증의 무의식적 노출로 볼 수 있겠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나타나 취하는 언동은 그저 해피하기만 하다. 무슨 감정이 있어 그의 성지 선포의 계획을 망쳐버리는지는 따질 가치조차 없는 일이라 치더라도, 한 방의 포성과 함께 그가 사라진다는 것은 포격을 받고 죽었다는 소린지 포성에 놀라 도주했다는 소린지, 이 장의 조정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블룸이 간접적이거나 비웃 입은 사나이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은 한밤중이 지난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읽은 『이브닝 텔라그라프』지를 통해서이다. 거기에 실린 “고 패트릭 디그넌씨의 장례식” 참석자 명단에 그가 이름도 없이 그저 민토시(M'Intosh)로 나와 있다(U 16. 1261). 그가 민토시로 둔갑한 것은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이 하인츠의 경솔함 때문이다. 낮에 무덤에서 하인츠가 비웃 입은 사나이의 복장을 몰라 묻기에 “비웃”(macintosh)이라고 하였더니 그는 이를 “민토시”(M'Intosh)로 잘못 알아들은 채 자리를 뜨려 한다. 그는 복장 이름을 사람이름으로 착각하는 줄 눈치 채고 이를 바로 잡아주려 하나 “민토시”라고 잘못 쓴 수첩을 접으며 들은 척도 아니하고 하인츠가 어디론가 급히 사라지는 바람에 조문객 명단에 “민토시”로 나오게 된 것이다. 그는 이를 보는 순간 “이런 포복절도할 오식”에 웃음을 참지 못하나 비웃 입은 사나이의 정체 파악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리어 그는 그런 일이 벌어진 묘지 장면이 생생하게 머리에 떠올라 그에 대한 물음표가 커지기만 한다.

블룸은 하루가 다 가도록 비웃 입은 사나이의 정체를 알지 못한다. 그는 그 미스터리를 푸는데 도움이 될만한 어떠한 실마리도 포착하지 못한다. 그사이 조정자들은 몇 차례 비웃 입은 사나이의 출현을 언급하였으나 그는 이를 알 리가 없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황당무계한 서술과 정보는 그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더욱 부채질하였을 것이다. 한마디로, 그는 그가 무덤에서 품기 시작한 “도대체 저 비웃 입은 사나이는 어디서 튀어나왔을까?”라는 의문에 답을 얻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가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비웃 입은 사나이”의 미스터리가 그가 그 날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되고 만다.

자발적인 이해 능력이 있는 블룸이 자신이 연루된 수수께끼 중에서 어떤 수수께끼를 이해하지 못했는가?

민토시는 누구였나? (Who was M'Intosh?) (U 17. 2063-66).

문답의 형식으로 서술된 「이타카」장에서, 평서문으로 대답해야 할 자리에 조정자가 관례를 깨고 의문문으로 답을 대신하는 것은 “민토시는 누구인가?”하는 문제가 블룸에게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조이스는 블룸이 그토록 심각하게 보는 문제에 끝까지 힌트조차 주지 않는다. 따라서, 조이스가 부재의 수사학을 써서 비웃 입은 사나이의 정체를 끝까지 수수께끼로 남기는 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리 정답을 찾으려 해도 그 답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불가사의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한다.

“비웃 입은 사나이”의 미스터리와 관련,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이스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는 『율리시스』의 집필을 끝낸 직후 어느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작품에다 많은 수수께끼와 퍼즐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나의 진의를 논의하느라고 수세기동안 학자들을 바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작가의 불멸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지요”(JJ 521). 학자들이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도록 많은 수수께끼를 매설하였다는 그의 익살 섞인 언명은 그가 『율리시스』에서 부재의 수사학적 전략을 쓰고 있다는 실토에 다름 아니다. 학자들이 시간을 두고 풀려고 들면 풀릴 수 있는 수수께끼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다. 하여튼 많은 수수께끼로 학자들의 관심을 묶어 두는 것이 『율리시스』의 영원성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학자들은 그사이 비웃 입은 사나이의 신비를 벗기느라 바쁘고, 지금도 여전히 바쁘다. 다투어 난제의 해결에 매달린 나머지 그 사이 적지 않은 답안들이 나왔다. 지금까지 나온 답안들 중에서 중복을 피해 중요한 주장을 정리해 보면 대충 다음과 같다. (1) 민토시는 장례식에서 죽음의 숫자인 13번째 문상객이므로 죽음(Death)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한 예수일 수도 있다. (2) 그는 “죽은 숙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 아픈 사건」에 나오는 제임스 더피이거나, 페르세포네를 사랑한 그리스 신화 상의 하이데스일 가능성도 있다. (3) 작품의 진행 상황을 가면을 쓰고 몰래 둘러보는 작가 조이스이다. (4) 텔레마코스가 잘 아는 골치 아픈 무법자 테오클리메노스일 수도 있다. (5) 정처 없이 떠도는 전형적인 부랑자다. (6) 웨더럽(Wetherup)이라는 조이스 아버지의 친구다. (7) 같은 시간에 두 장소에 함께 나타나는 블룸의 살아있는 유령 또는 분신(Doppelgänger)

이다. (8) 조이스가 좋아한 아일랜드의 비운의 시인 맨건(James Clarence Mangan)이다. (9) 사별한 부인과 같이 지내기 위하여 아일랜드 서부의 무덤에서 나온 블룸의 선친 루돌프 블룸의 망령이다. 그는 비웃을 입고 무덤 주변을 서성거린다(Herring 111-12). (10) 무덤에서 되살아난 애국자 찰스 스튜어트 파넬이다. (11) 방랑하는 유대인(Wandering Jew)이다. (12) 부활하여 처음으로 제자 앞에 나타나기 위하여 엠마우스(Emaus)로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다(Adams 103).

이렇듯 학자들의 답안은 구구하나 어느 것 하나 정답으로 볼 수는 없다. 한결 같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한 문제에 이렇게 많은 답이 있을 수 있겠는가. 조이스는 지하에서 팔짱을 끼고 학자들의 추측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갑론을박을 즐기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앞으로 어떠한 답안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것이 정답인지 조이스 밖에는 모를 것이다.

비웃 입은 사나이의 문제를 “현대 문학에서 가장 크게 독자들의 애를 태우는 수수께끼의 하나”로 보는 헤링(110)에 의하면, 조이스는 “애초부터 그 정체의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의도였다”(206)고 한다. 헤링은 그 증거로 조이스가 『율리시스』의 집필 준비단계에서 작성한 원고의 내용을 든다(115). 그의 의하면, 조이스가 「하이데스」장의 집필을 위하여 준비한 비망록(notebook)에 “Tarnkappe”라는 독일어가 적혀있다(Joyce's Notes... 27). 이 말 (독어 *tarnen*: to camouflage, mask, screen, disguise, or hide; *Kappe*: cloak, cap, or hood)은 조이스가 그리스·로마신화에 관한 독일어 백과사전(6 vols. Ed. W. H. Roscher. Leipzig, 1884-1937)에서 따온 것으로, 글자 그대로 몸을 감추는 마법의 외투를 의미한다. 제우스신이 타이탄신들과 투쟁을 시작했을 때 하이데스가 그의 형인 제우스의 승리를 돕기 위하여 그의 형에게 입혔다는 이 마법의 외투는 그 착용자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자신을 감쪽같이 숨길 수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조이스는 「하이데스」장을 집필할 때 이 신화 상의 외투를 당시의 아일랜드의 풍토에 걸맞도록 ‘macintosh’(고무 입힌 레인코트, 방수 외투, 고무 입힌 방수포)라는 말로 대체하였다. 바꿔 말하면, “민토시”에게 입힌 “비웃”은 신화 상의 몸을 감추는 외투(“Tarnkappe”)의 현대적 대응물인 셈이다. 그러므로, 하이데스가 제우스에게 마법의 외투를 입혀 그의 형의 정체를 적군에게 들키지 않도록 숨겼듯이 조이스도 비웃 입은 사나이에게 “비웃”을 입혀 그의 정체가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116-17).

“민토시”의 정체가 블룸에게 끝까지 미스터리로 남는 것은 조이스가 당초부터 원고의 증거로 확인하였듯이 그 정체가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도록 계획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재의 수사학을 통한 비웃 입은 사나이의 모티프는 이 세상에는 아무리 정답을 찾으려 하여도 찾을 수 없는 미스터리가 있음을 말하려는 것이 조이스의 메시지일 것이다.

5. “천재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의 실수는 의도적인 것으로,
발견의 문이 된다.”(U 9. 228-29)

블룸은 우연의 일치를 겪을 때마다 그 우연의 의외성에 곧잘 경탄을 발하면서도 우연 뒤에 숨은 의미 내지 신비성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저 유익한 그 무엇이 있다는 생각이 고작이다. 그는 해질 녘에 거티의 노출중에 흥분을 이기지 못하여 자위행위를 하고는 나른한 몸으로 그녀가 뒤에 와서 보도록 주운 막대기로 모래톱에다 “나는 ...”(I. AM. A)이라는 미완성 메시지를 쓴다(U 13. 1258-64). 그는 곧 부질없는 짓이라는 생각에 그 글을 발로 밟아 지워버리고는 막대기도 던져버린다. 그 막대기는 공교롭게도 빨발에 꽃꽂하게 꽂힌다. 그러자 그는 “우연이야. 우리는 다시 결코 만나지 못할 거야. 그러나 그건 아름다운 만남이었어. 잘 가요, 아가씨. 고마워. 나를 무척 젊은 기분을 느끼도록 해 주었으니까”(U 13. 1271-73)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전부다. 거티를 우연히 만났기 때문에 순간적이나마 젊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우연의 효과에 대한 그의 생각의 전부다. 그는 우연의 잠재력을 개인적인 경험과 연결시켜 국부적으로 이해할 뿐,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경지로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젊은 스티븐이 우연의 보이지 않는 힘을 단연 포괄적으로 파악한다. 스티븐은 블룸보다 삶의 경험도 적고 우연의 일치도 훨씬 덜 겪지만 우연의 잠재력의 인식에 관한 한 작가 조이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아 보인다. 지적이요 현학적인 그는 도서관 장면에서 셰익스피어의 삶과 문학을 논하다가 우연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한다.

모든 인생이란 수많은 나날들의 연속이죠. 우리는 강도들, 유령들, 거인들, 노

인들, 젊은이들, 아내들, 과부들, 사랑으로 맺힌 형제들과 맞닥뜨리면서 우리들 자신 사이로 걸어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결국에 가서 만나는 것은 언제나 우리들 자신이랍니다. (U 9. 1044-46).

스티븐의 말인즉, 인생이란 온갖 부류의 타인들과의 만남으로 점철된 여정에서 우리가 마침내 도달하는 종착역은 우리들 자신의 발견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우연의 연속인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에 미처 몰랐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우연에는 새로운 진실을 깨닫게 하는 위력이 있다는 스티븐의 이 말은 그의 다음과 같은 말과도 맥을 같이 한다. 그는 역시 같은 장면에서 셰익스피어를 두고 “천재는 무심코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의 실수는 의도적인 것으로, 발견의 문”(U 9. 228-29)이라고 하였다. 실수도 “발견의 문”이 되거늘 어찌 우연이 발견의 문이 되지 않겠는가. 스티븐의 이러한 언명을 종합해 볼 때 조이스는 아무런 목적 없이 우연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독자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으리라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이스가 우연의 문제를 통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발견케 하려는 진실은 무엇인가? 바꿔 말해, 우연의 주제를 다루는 근본적이고도 보편타당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를 더듬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스로우어웨이” 모티프의 숨은 메시지는 언어의 유희성에 있고, “비웃 입은 사나이”의 모티프의 그것은 세상에는 그 무엇으로도 밝힐 수 없는 미스터리가 있음을 암시하려는 데 있어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이거나 지엽적인 문제였다. 이를 아우르는 총체적이면서도 보다 근원적인 의도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은 우선 독자를 공동의 의미 창조자로 참여시키기 위하여 부재의 수사학을 이용하려는 전략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그의 회의주의적인 인생관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조이스는 철학적으로 회의주의자였다. 그는 인식의 확실성을 부인하고 진리의 절대성을 의심하는 회의론의 신봉자였다. 이는 그의 아들 친구(Arthur Laubenstein)와의 대화에서 입증된다. 그는 로벤스타인에게 “완전한 신뢰와 회의(doubt) 중에서” 회의가 “인간을 결속시키는 힘이 훨씬 더 크다”고 본다면서 “세상이 공허에 매달려 있듯이 우리의 삶도 회의에 매달려있다”는 말로 자신이 회의론자임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추방된 사람들』(Exiles)을 보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JJ 557). 조이스는 그의 하나 뿐인 이 회곡에서 회의의 문제를 주제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의 「작가 노트」(Notes by the Author)에다

이렇게 적기도 하였다. “모든 켈트인 철학자들은 불확실성 또는 회의주의에 경도하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훔(Hume), 버클리(Berkeley), 발포(Balfour), 베르그송(Bergson), 이 모든 철학자들이 말이다”(E 125).

조이스는 『추방된 사람들』에서 회의주의적인 비전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야심작 『율리시스』에서도 보다 선명하게 제시한다. 이는 스티븐의 말 속에 잘 나타난다. 스티븐은 세익스피어를 펼치는 과정에서 모성애(*Amor matris*)는 의심의 여지없는 진실이지만 부성(fatherhood)이란 정체를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유산”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교회는... 그와 같은 불가사의 위에 건립되어 있어요. 세상과 마찬가지로, 즉 - 대우주와 소우주와 마찬가지로 공허 위에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요지부동하게 건립되어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 불확실성 위에, 불가능성 위에 건립되어 있다는 말입니다(U 9. 839-42).

교회가 일반 세상처럼 “공허” 위에 건립되어 있다는 그의 말은 세상이 “불확실성” “불가능성”과 같은 공허 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여기서 “공허”라 함은 그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실체에는 공허 그 자체가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다⁶⁾. 세상은 철저하게 공허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스티븐의 말은 조이스 자신의 “세상이 공허에 매달려 있듯이 우리의 삶도 회의에 매달려 있다”는 견해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조이스는 젊은 지성인 스티븐을 내세워 그의 회의론적 지론을 대변케 한 것으로 보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책[『율리시스』]은 회의론자의 책”이라는 벅전의 지적에 조이스가 선뜻 동의한 것(*Budgen* 156)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조이스의 회의주의사상은 현대 물리학의 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1900년대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물리학상의 발견은 진리의 절대성을 믿어온 고전 물리학의 명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뉴턴적인 종전의 고정관념을 깨뜨린 최근 이론으로 상대성 이론, 양자론, 카오스 이론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양자역학상의 불확정성 원리(*uncertainty principle*) (1930)의 개념이 조이스의 회의론과 직결

6) 이 말과 관련하여, 조이스는 아들 지오르지오에게 (1935년에)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다. “아버지의 눈은 지금 지쳐있네. 반세기가 넘도록 줄곧 무(nullity)를 응시하였으니까. 아버지는 그 무에서 항상 아름다운 공허(nothing)를 발견할 수 있었지” (*Herring* 92 재인용).

된다⁷⁾. 조이스는 이 원리의 발견자인 하이젠베르크(Werner Heisenberg)를 알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그의 회의주의는 인식의 확실성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이 원리와 취지를 같이 한다. 불확정성 원리란 미립자 현상에서 위치와 운동량과 같은 물리량은 양자를 동시에 관측하여 정확한 값을 측정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이젠베르크의 이 발견은 정확한 위치와 속도의 측정은 가능하다고 믿어 온 고전 물리학의 철칙을 뒤엎은 혁명적인 이론으로, 종전의 절대성 또는 확실성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조이스의 회의주의와 서로 맞닿는다, 아니할 수 없다.

조이스가 “경절형이라는 불완전한 도형을 바탕으로 부재의 수사학을 개발한 것은 그가 그의 작품 속에 불확정성 원리의 개념을 도입함을 의미한다”는 헤링의 지적(x)이 사실이라면, 그가 『율리시스』에서 우연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그의 회의론적 비전을 보여주려는 것이 그의 근원적인 목적이 아닌가 한다. 확실성의 세계에 젖어 있는 독자들이 그의 그러한 비전을 스스로 깨닫도록 말이다.

(전 충북대)

7) 조이스의 작품과 현대 물리학 이론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최근 부쩍 늘고 있다. 그간의 연구업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Ihab Hassan, “Joyce and the Gnosis of Modern Science.” *The Seventh of Joyce*. Ed. Bernard Benstock.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1982: 185-90; M. Keith Booker, “Joyce, Plank, Einstein, and Heisenberg: A Relativistic Quantum Mechanical Discussion,” *JJQ* 27. 3(Spring 1990): 577-86; Phillip F. Herring, *Joyce's Uncertainty Principle*. Princeton: Princeton UP., 1987; Philip Kuberski, *Chaosmos: Literature, Science, and Theory*. Albany: State Univ. of New York P., 1994; Thomas Jackson Rice, *Joyce, Chaos, and Complexity*. Urbana: U. of Illinois P., 1997; Peter Francis Mackey, *Chaos Theory and James Joyce's Everyman*. Gainesville: Univ. P. of Florida, 1999; Michael Schleifer, *Modernism and Time: The Logic of Abundance in Literature, Science, and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P, 2000.

인용 문헌

- Adams, R. M. "Hades." *James Joyce's Ulysses: Critical Essays*. Eds. Clive Hart and David Hayman.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74: 91-114.
- Blamires, Harry. *The New Bloomsday Book: A Guide Through Ulysses*. London: Routledge, 1989.
- Booker, M. Keith. "Joyce, Planck, Einstein, and Heisenberg: A Relativistic Quantum Mechanical Discussion," *JJQ* 27. 3 (Spring 1990): 577-86.
- Budgen, Frank. *James Joyce and the Making of Ulysses*. London: Oxford UP, 1972.
- Ellmann, Richard. *James Joyce*. New and Revised Edition. New York: Oxford UP, 1982.
- Gifford, Don, with Robert J. Seidman. *Ulysses Annotated: Notes for James Joyce's Ulysses*.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9.
- Hassan, Ihab. "Joyce and the Gnosis of Modern Science," *The Seventh of Joyce*. Ed. Bernard Benstock. Bloomington: Indiana UP, 1982: 185-90.
- Herring, Phillip. F. *Joyce's Uncertainty Principle*. Princeton: Princeton UP, 1987.
- Joyce, James. *Exiles*. New York: Viking, 1975.
- _____. *Ulysses*. Ed. Hans Walter Gabler with Wolfhard Steppe and Claus Melchior.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86.
- _____. *Finnegans Wake*. New York: Viking, 1974.
- _____. *Joyce's Notes and Early Drafts for Ulysses: Selections from the Buffalo Collection*. Ed. Phillip F. Herring. Charlottesville: UP of Virginia, 1977.
- Kenner, Hugh. "The Rhetoric of Silence." *JJQ* 14. 4 (Summer 1977), 382-94.
- Kuberski, Philip. *Chaosmos: Literature, Science, and Theory*. Albany: State U of New York P, 1994.
- Lacan, Jacques. *The Seminar. Book XI.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1964*. Trans. Alan Sheridan. London: Hogarth Press and Institute of Psycho-Analysis, 1977.
- Mackey, Peter Francis. *Chaos Theory and James Joyce's Everyman*. Gainesville:

UP of Florida, 1999.

McCarthy, Patrick A. *Ulysses: Portals of Discovery*. Boston: Twayne, 1990.

Monk, Leland. *Standard Deviations: Chance and the Modern British Novel*.
Stanford: Stanford UP, 1993. .

Rice, Thomas Jackson. *Joyce, Chaos, and Complexity*. Urbana: U of Illinois P,
1997.

Abstract

The Theme of “Chance” in *Ulysses* and the Rhetoric of Absence

Sheon-Joo Chin

The paper aims to explore James Joyce's message to the readers in the theme of chances—or coincidences—which he developed in his *Ulysses* by use of “rhetoric of absence,” his narrative strategy of gaps. To carry out that purpose, two representative cases were selected out of the numerous chances which take place in the text; one is the “T/throwaway” motif, the other the “man in macintosh” motif.

It is noteworthy that both of these motifs are developed through the method of rhetoric of absence, as termed by Phillip F. Herring, in which Joyce intentionally avoids giving evidence supporting the process of discourses so as to have them appear self-reflexively free of author's intervention. Upon close examination, it turned out that the former is related to Joyce's view of language as unstable or arbitrary, and the latter is related with his view of the world as mysterious.

Since it is doubtful that Joyce is concerned with chances without any significant reason, it appears that his main and comprehensive concern is to reveal his skeptical vision of life as is exhibited in Stephen's saying that the world is founded upon the void or incertitude, in expectation that his readers would share his vision.

■ **Key words** : chances, “T/throwaway,” “man in macintosh,” rhetoric of absence, strategy of gaps, uncertainty principle, skepticism(우연, “스로우어웨이” 모티프, “비웃 입을 사나이” 모티프, 부재의 수사학, 틈의 전략, 불확정성 원리, 회의주의)